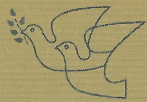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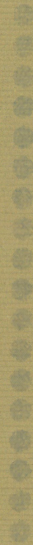


여성평화운동 리더십 개발  
"내 안의 보석을 찾아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일시 : 2003년 10월 3일(금) ~ 10월4일(토)
- 장소 : 바람과 물 연구소 (경기도 가평)

여성평화운동 리더십 개발  
"내 안의 보석을 찾아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일시 : 2003년 10월 3일(금) ~ 10월4일(토)
- 장소 : 바람과 물 연구소 (경기도 가평)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가끔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자연의 품 안에서 맘껏 쉬고픈 열망이 있습니다.  
 심 속에서 자신을 잔잔히 돌아보고  
 자신 속에 감추어진 아름다운 장정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희 평화여성회가 바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새소리, 계곡의 물소리, 나무와 풀내음 그리고 땅의 향기와 함께  
 평화여성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가치와 평화로움과 진정  
 한 힘을 느끼고 발굴해 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적극 참여하셔서  
 우리 내면을 평화의 힘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평화물안드논여성회  
 공동대표 어김현숙 김숙임 심영희





프로그램 순서

일자	시간	강의명	강사
10월 3일	9:00 - 12:00	출발 - 서울 동대문 운동장역	
	12:00 - 13:00	도착 및 접수	
	13:00 - 14:00	점심식사	
	14:00 - 15:00	몸과 마음으로 인사하기	박수선(평화여성회 공동대표원티소장)
	15:00 - 17:00	내안의 보석을 찾아라 "여성평화 운동리더십개발을 위한 사명관 리"	양세진(시민리더십 센터 소장)
	17:00 - 17:30	쉬어가기	
	17:30 - 18:30	내안의 보석을 관리하라 "여성평 화운동리더십개발을 위한 시간관 리"	양세진(시민리더십 센터 소장)
	18:30 - 19:30	평화의 만찬	
	19:30 - 20:30	내안의 보석을 관리하라 "여성평 화운동리더십개발을 위한 시간관 리"	양세진(시민리더십 센터 소장)
	20:30 - 21:30	쉬어가기	
	21:30 - 23:00	평화축제의 시간 "댄스댄스 댄스 - " PEACE BELL을 울려라" 외	
10월 4일	08:00 - 09:00	아침식사	
	09:30 - 11:00	평화의 명상 "나를 찾아서 자연을 찾아서"	문명녀(평화심성팀 장)
	11:00 - 12:30	여성평화운동의 리더가 되자 "여성이 만드는 평화"	정현택(한국여성단체 연합공동대표, 성관관 대 사학과 교수)
	12:30 -	식사 후 평가회 및 해산	



# 사명서 워크숍

- 평화여성회 -

---

양세진

시민리더십센터 소장  
한국리더십센터 전문위원

2003. 10. 3(금)



인생의 비극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달하려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데 있다.

만약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

시행착오의 결과는 ????

→ 63빌딩의 건축과정

## 자기사명서(Personal Mission Statement)

### 사명서란 무엇인가?

#### 사명서(Mission Statement)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대단히 유용한 문서이다. 사명서는 당신이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되는 개인 헌법의 역할을  
해준다.

# 使命書

## 生命을 使用하는 지치書

해상뗏목  
(使命없음)

- 해류에 의존함
- 목적지가 없음
- 불안감
- 의존적

모터보트  
(使命있음)

- 자체동력이 있음
- 목적지가 분명함
- 안정적
- 독립적

자기내면에 집중

## 자기 사명

지배가치

익함수행

1. 자기사명을 갖는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2.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물음을 던지기 보다, 자신의 존재방식, 즉 현존하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3. 우리 자신은 어떤 기술이나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우리 내면에 집중함으로써,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배가치

## 1. 지배가치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내면의 감정과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2. 우리 자신이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못하고 있든 우리는 모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배가치에 의해 행동을 하게 된다.

3. 그리고 자신의 지배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때에는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불안하고 불만을 갖게 된다.

→ 자신의 지배가치 확인이 중요하다.

1.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관계와 책임이다.

2. 은둔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혼자 살지 않는다. 항상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다른 사람들 - 가족, 친구, 동료, 기타 다른 사람들 - 이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생성되는 관계와 책임이 바로 인생에서 우리의 역할이다.

→ 논어의 정명론 : 역할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 사명은 결국 우리자신의 역할수행을 통해 드러나고 평가받게 된다. (7가지역할)



Memento Mori

(Remember that You must die.)

죽음을 기억하라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사명

해야만 하는 것

## 자기사명서의 이점

### 자기사명서는 :

- 당신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한다.
- 당신의 태면 깊숙한 곳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분명하게 한다.
- 당신의 시각을 확대시켜 준다.
- 당신의 가치관이나 목적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준다.
- 가치관에 따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게 한다.
-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날마다 진권이 이루어지게 한다(일일계획과 주간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때).
- 당신의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그리모는 정신적 참조, 즉 첫 번째 참조를 한다.

## 자기사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 나는 왜 존재하는가?
- 내가 갖추고 싶어하는 성품은 어떤 것인가?
- 내가 사회에 남기고 싶고 하고 싶은 유산은 무엇인가?

## 5분간 연속 쓰기 연습

지 시 :

- 쉬지 말고 5분 동안 무엇이든지 쓰라.
- 더 이상 쓸 것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무언가 떠오를 때까지 당신의 펜을 계속해서 움직여라.
- 내용에 신경 쓰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종이 위에 써 보라.

계속 수정하고 다듬어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라.

# 자기 사: 공유하기

1. 조별로 조원들과 함께 공유
2. 조별로 한 사람씩 추천
3. 작성한 사명서는 자신의 책상, 플래너, 노트 등에 부착하여 항상 의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PERSONAL MISSION STATEMENT

자기 사명 (선언)서

FAMILY MISSION STATEMENT

가족 사명 (선언)서

DEPARTMENT MISSION STATEMENT

부서 사명 (선언)서

- 감정계좌에 1일 1회 이상 예입하면서 일하자.
- Stop-Think-Choose 하자.
- 고통보다는 행복을 선택하자.

Organization MISSION STATEMENT

조직 사명 (선언)서

# 나 자신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좀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아,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기 위해 자리에 누워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  
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런지.....”

- 웨스터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에 있는  
어느 성공회 주교의 묘비명 -

## 서산대사의 시

눈 덮인 광야를 걸을 때에는  
이리 저리 함부로 건지 말라  
오늘 남긴 발자국은 반드시  
뒤 사람의 길이 되리라

#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와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메모란



메모란



메모란

# 소중한 것을 먼저하라

---


양세진

시민리더십센터 소장  
한국리더십센터 전문위원



# 시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너무 느리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비탄에 빠진 자에게는 너무 길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너무 짧고,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것은?



그럼 도대체

시간(Time)이란 무엇인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누가 그것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시간에 관해서 웬만큼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시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아무도 내게 묻지 않는다면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된다면 솔  
직히 나는 알지 못한다.

-성 아우구스틴

## 시간관리는 인생관리다

빨리 비켜가고 싶은 순간에는 왜 그렇게 시간이 느릿 느릿 가고, 1초라도 시간이 더 필요할 때는 왜 그렇게 쏠살같이 지나갑니까?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비협조적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양은 매우 공평합니다. 우리 모두는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양의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보통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는 사람은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들은 매 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합니다.

1990년대, 사람들은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재생 가능한 자원(renewable resource)입니다. 그것은 곧 거기에는 항상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부족한 자원입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일정한 시간의 몫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시간은 사용되고나면 그만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바로 당신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시간관리(time management)"는 바로 "인생관리(life management)"를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하고 있는 일이 지금으로부터 10년, 50년, 혹은 더 오랜 시간이 지난다면 어떻게 되어있을까?"

우리가 언제나  
입에 달고 다니는 말

# 항상 바쁘다.

바쁘다라는 말을 통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 바쁜 어떤 활동가의 생활

오늘도 야근이다. 매일 매일 터지는 이슈들에 대해 논평쓰고, 집회준비하고, 연락하고 등 등 정시에 퇴근하는 법이 없다.

그리고 업무가 끝났다. 오늘도 한 잔 걸치고 집에 들어 온다.

TV에서 이 프로는 꼭 보라고 외치낸다. TV를 보고 난 후 이리저리 채널을 돌려 본다. 보고 나니 졸립다. 졸리우니 잠잔다. 자다 보니 벌써 사무실 나갈 시간이다. 허겁지겁 집을 달려 나간다. 오늘도 늦게 나온다고 면박을 주는 사무처장과 대표.... 밤늦게 까지 일하라고 해놓고 늦게 나온다 고 야단이니, 피곤하다. 그러다 보니 주말이 왔다. 프로 야구, 축구, 농구 얘기가 한창이다. 김들이, 백일잔치, 송별회, 동창회, 야유회, 환영식과 환송식 등으로 주말은 평일보다 더 바쁘다.

시민사회운동을 한다는 것이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기 힘들고, 늘 외부에서 터져나오는 이슈들에 대처하는 생활이다 보니, 내 사명을 정리하고 내 삶을 주도하고 싶지만, 시민사회운동가로 사는 이상 공동의 승리는 고사하고 개인의 승리조차 요원하기만 하다.

그러면서 남들도 다 그렇게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고, 또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바쁨을 은근히 즐긴다.

기억하자!

긴급성

/

우선순위



# 제 3 상한에 집중하는 사람은 BUSINESS가 아닌 BUSYNESS를 생산한다

항상 바쁜 사람은?  
항상 가치 있는(중요한) 일은 나중에 하고  
급한 일부터 처리 하는 사람

시간이 없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하루에 24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분?

그래도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시간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다.

- 피터드러커 -

세계를 바꾸겠다는 의지로 인생은 시작된다. 그러나 고작 TV 채널을 바꾸는 것으로 인생은 끝난다.

-루치아노 데 크레센초

\*TV를 끄고 인생을 켜시다

# 시간관리 매트릭스

	긴급함	긴급하지 않음	
<p><b>1</b> • 위기 당면한 문제 마감 시간이 임박한 프로젝트, 모임</p> <p><b>중요함</b></p>	<p><b>필수의 상한</b></p> <p>중요하지 않은 전화 쓸데없는 참견 다른 사람의 사소한 문제 주변 사람들의 눈치</p> <p><b>3</b> <b>속임수의 상한</b></p> <p><b>중요하지 않음</b></p>	<p><b>2</b></p> <p>준비/예방/계획 가치관 정립 관계 구축 휴식</p> <p><b>리더십의 상한</b></p>	<p>지나친 TV 시청 끝없는 전화 2차, 3차 모임 지나친 컴퓨터 게임</p> <p><b>4</b> <b>낭비/도피의 상한</b></p>

## 뚝을 갈았더라면

한 청년이 병목 현장에 와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인은 나무를 베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나무 앞으로 걸어나가 익숙한 솜씨로 큰 나무를 베어 넘겼습니다. 외외의 솜씨에 놀란 주인은 일을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 목요일 오후가 되었을 때 주인이 급료를 받아 가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급료는 금요일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은 그렇게 하지만 자네 실적이 떨어져서 자네를 오는 해고하기로 결정했네. 작업일지를 보니 자네의 실적은 월요일엔 동료들 중 가장 좋았다가 수요일엔 제일 꼴찌가 되었더군..."

"에, 하지만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보다 훨씬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마지막까지 일했고 심지어는 휴식시간에도 일을 했습니다."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뚝 날을 갈아서 쓰고 있나?"

"나무 열심히 일하느라 뚝을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청년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안보이더라도 차분히 계획을 세우고 뚝날을 갈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Doing Good

Do it Well

21세기는 삶의 질의 시대 즉  
"Well Being"의 시대이다.

##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생각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것은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책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것은 지혜의 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사랑 받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것은 신이 부여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웃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것이 이기적이기엔 우리 하루가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것은 자신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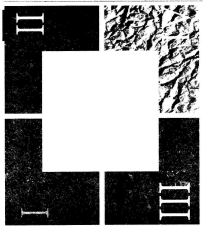
say No!

용기와 배려의 균형속에서 발언



# 명칭의 사용과 불명칭의 사용

긴급함      긴급하지 않음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하루 중 단 1%의 시간을 계획을 세우기에  
할애한다면 나머지 99%의 시간은  
확실히 컨트롤할 수 있다.



## FOCUS on the Mission !

Number of Goals	2-3	4-10	11-20
Goals Achieved With Excellence	2-3	1-2	0

인생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바꾸어야 하는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지 아는 일이다. 즉, 나의 에너지를 쏟아 부을 사명이 무엇인가이다.

리더십의 차원인 2상한에 포커스를 맞춘 삶

# Are you Focused?



메모란

강의 : 여성이 만드는 평화

## 한국의 여성평화운동, 그 성과와 과제<sup>1)</sup>

정현백(성균관대 사학과)

### I. 머리말

21세기는 소요와 불안으로 시작되었다. 세기말의 시대정신은 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짐작되었지만, 지금의 공포는 어느 시대보다도 특별한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가공할 만한 속도로 진행된 세계화가 가져다준 충격과 그로 인한 불평등 확대는 세계 도처에서 자원 배분을 둘러싼 전쟁을 가속화시켰고, 동구 공산권의 붕괴는 냉전체제가 억제해왔던 민족주의 전쟁을 부추겼다. 저가에너지가 무기 기술의 가속적인 발전과 그 파괴력 그리고 자원을 확대하려는 통제할 길 없는 욕망도 무력 갈등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평화'라는 용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지향해야할 지고의 가치로 떠오르게 되었다. 특히 9.11 테러와 아프간, 이라크전쟁이 터지면서, 평화는 온 세계인이 실현해야할 지상 최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반도에서 평화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90년대 초이래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평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의 위기가 초래하는 군사적 긴장은 거부장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여성은 오랫동안 군사주의 하에서 고통받아 왔음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90년 대 후반이래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평화운동이 활발해졌다. 평화실현을 위한 여성 특유의 방법이 시도되었고, 평화운동이 취약한 한국 사회에서 군사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반전운동에 앞장 선 선구적인 여성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활발한 여성평화운동이 가혹되거나 기억되지 않는다면, 역사의 진

1) 이 원고는 미완성입니다.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대부분 남성의 공헌으로 남계됨을 우리는 기존 역사서술에서 충분히 경험하였다. 그래서 이 글은 1990년 대 후반이래 진행된 여성평화운동을 정리하고 서술하는 것을 통해, 이를 역사화(Historisierung)할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2) 여기저기에서 때로는 소규모로 때로는 분산되어 진행되었고, 또한 매스컴의 주목도 제대로 받지 못한 여성평화운동의 편린을 모아서, 이를 역사 속에서 자리 매기는 작업은 여성의 역사를 제대로 서술하는 과정이자 동시에 전체 역사의 균형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 아래 이 논문은 여성평화운동의 생성과 발전 및 확산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논문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점은 여성평화운동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 인가이다. 기존의 논문에서는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을 통합하여, 여성통일평화운동으로 표현하였고 또한 구체적인 활동에서 양자는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를 분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는 여성평화운동을 분리된 범주로 표현하고자 하는데, 이는 양자사이에는 지향점이나 관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고, 또한 여성평화운동이 제기하는 문제의식 자체가 한국의 통일운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전제로 하기에 이를 분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II. 여성평화운동의 성장배경

한국의 평화운동은 여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미 1970년대에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2차대전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에 의해 발생한 한국인 피폭자 2만 명이 겪는 병고와 빈곤을 여문화하고, 이들에 대한 치료와 생계지원을 하였다. 1985년부터는 <기독교여민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반전·반핵·평화’의 기치아래 ‘여성평화한다당’을 꾸준히 개최하였고, 무기장난감을 무공해비누 등으로 교환하는 전쟁문화퇴치운동을 전개하였다. 100만 이상의 인과가 거리로 나왔던

2) 역사화과정과 관련된 기억을 둘러싼 배경에 관해서는 김연환, 「누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김연환 편역, 『희망과 연대, 기억의 정치 2』, 문화과학사 2003, 389-416쪽 참조.

1987년 민주화운동과정에서는 <교회여성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최루탄 사용에 항의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를 위해 최루탄 피해고발센터를 열고, 평화행진, 최루탄 제조회사에 대한 항의전화, 사용금지 서명운동 등을 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 1994: 97-101)

기독교여성회, 교회여성연합회, 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운동단체들은 1991년부터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모임을 조직하고,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거의 1년 예산의 1/4에 이르렀던 국방비의 삭감이 여성복지비의 증대와 밀접히 관련된다는 인식 하에서 여성들은 군축운동의 발걸음을 처음 내디딘 것이다. 또한 1993년부터는 방위비 예산의 심의과정 및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방위비 삭감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의 장기적 기획과 연구를 시도하였으나, 이는 여성운동의 역량 때문에 거의 기획으로 끝나고 말았다. 어느 누구도, 어느 단체도 거론하지 못하던 국방비 삭감문제를 여성운동이 거론한 것은 당시의 현실에 비추어 대단히 용감한 시도였다. 또한 1991년 걸프전쟁의 와중에서도 '걸프전과 한국군과 병을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을 결성하고, 파병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1994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개 단체가 중심이 된 '페트리엇 미사일 백처를 반대하는 여성모임'이 결성되었고, 여성들은 우리 지형에 맞지 않고 성능도 좋지 않은 페트리엇 미사일 도입은 미국 무기산업의 활로를 제3세계에서 찾으려는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일 뿐이라는 비판과 함께, 항의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전반까지 진행된 여성평화운동은 한국에서는 선구자적인 운동이었으나, 여전히 활동가 중심의 소규모 여성운동이 지니는 한계와 여성에 대한 지면 할애에 인색하였던 언론의 거부장성으로 인해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운동 자체도 전담 단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본격적인 여성평화운동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한명숙, 1997: 223)

한국에서 90년 대 후반에 여성평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출현하여 성장한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역사적 요인이 작용하였다. 우선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남북 간의 접촉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현안과 새로운 문제의식이 떠오른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둘째로, 여성통일운동의 발전과정에서 그 한계점을 인식하면서, 그간의 운동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여성평화운동의 태동에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로, 80, 90년대 유럽의 신사회운동



내에서 일어난 평화운동과 국제 세미나를 운동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주의자의 활약이 한국의 평화운동에도 자극제가 된 것 같다. 물론 여성평화운동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을 언급할 수 있을 뿐, 이들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매길 수는 없다. 이들은 복잡한 역동적인 성립과정을 거쳤기 때문일 것이다.

### 1) 정치 사회적 조건 변화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변화는 김대중 정부와 함께 시작되었다. 문단과 군사주의 하에서 80년대 말부터 분출하기 시작한 통일운동은 반 외세, 민족자주를 그 핵심과제로 삼으면서 그 방법도 급진적이었고, 선도적인 집단에 의해 주도되었다. '미제 타도'나 '주한미군 철수'나 하는 주장이 거침없이 사용되었고, 북한의 원전들이 여과장치 없이 출간되었고, 분신이나 투신과 같은 극한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런 급진적 방법은 군부독재의 상황 하에서, 통일과 관련된 급진적 논의가 거의 금지되었던 상황 하에서, 통일에 대한 금기를 깨고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군부독재가 해소되고, 특히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행사에서 대한민국 수반의 자격으로 행동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서로의 '국가적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80년 대 통일운동이 고조되었을 당시,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통일방안 문제였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을 통해 양측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합의한 사실은 남북이 통일방안에서 공동점을 인정하고, 연방제 통일방안을 협의대상으로 수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제 급진적인 통일단체들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할 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통일운동도 한국 사회 내에서 그 정당성에 대한 '시민성'을 획득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어서, 이제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운동방법을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서동만, 2001:245)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의식도 변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약되었던 과거에는 민족민주운동이나 통일운동이 제공하는 '북한바로알기운동'이나 자주적 교류의 시도는 그 자체로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이제 언론이나 다양한

침착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난이 알려지지 시작하면서, 통일의 경우 남한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통일 운동 전열이 친북적이기 않느냐는 의구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보수집단이 2002년 말부터 조직화된 반김정일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통일운동은 심각한 분열화와 갈등을 수반하는 분열의 회오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통일운동은 과거와 같은 통일과 반통일의 이분법 구도에서 벗어나서 통일 운동 내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게 되었다. (김창수, 2001: 10) 더불어 90년대 후반기 이후 전보세력과 학생운동이 독립하고 있던 통일운동의 외연이 확장되고, 운동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이 북한동포 돕기, 북한 바로 알기 등 다양한 운동에 참여하면서, 통일운동의 주체가 다원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새로이 제기되는 현실적 요구들은 여성통일운동으로 하여금 자기성질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 2) 여성통일운동을 둘러싼 새로운 상황

앞에서 말한 대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와 더불어 남북교류를 적극 후원하면서, 이는 여성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였다. 특히 이는 과거에 남북교류나 북한과의 대화를 금기시하였던 보수적인 여성단체들이 북한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북한을 돕는 운동에 참여하도록 자극함으로써 여성을 정치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통일과 더불어 (동독)여성이 내부식민제로 전락하는 독일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런 타국의 역사적 경험이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자극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정현백, 2003: 320-30) 여성성화운동이 객관적인 정치정세의 변화에 자극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80년대이래 보다 역동적으로 발전한 여성통일운동의 자기각성 속에서 활성화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1997년이래 진행된 여성통일운동을 개괄적으로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 북한여성돕기

여성통일운동에서 1997년 이후 보여준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북한동포돕기>사업이었다. YWCA,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교회여성연합회, 원불

교여성회, 한국여성지도자연합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여성위원회도 상시적인 여성조직은 아니지만, 양적으로는 여성의 이름으로 꼭대 많은 물품을 기탁하였다.

여성이 수행한 북한동포돕기운동은 총액으로는 일반 민간단체가 지원한 액수에 비해 보잘것없는 것이어서, 여성의 낮은 경제력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교회와 종교단체의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 이런 여성의 노력이 여성의 이름으로 가시화되지 않아서, 그 기여도가 잘 드러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그렇다면 이 운동은 여성들로 하여금 남북문제를 진지하게 숙고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북한 여성을 자매애로 포용하는 실천운동의 작은 시작이 될 수 있고,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여,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 남북여성교류

남·북·일본의 여성들이 1991-1993년 사이에 동경, 서울, 평양에서 4차례에 걸쳐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가진 이후, 여성통일운동의 중요한 부분인 남북여성간의 교류는 지난 10여 년 동안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다. 김대중 정부시 그동안 격조하였던 여성의 남북교류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통해 겨우 명맥이 유지되었다. 이미 1998년 베이징에서 열린 '중군위안부문제와 여성의 존엄'이라는 주제로 열린 남·북·일 3자 회합에 이어, 2000년 동경 국제전범여성법정, 2002년 남·북·일간의 평양토론회를 통해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와 지원활동

- 3)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공동으로 1997년 8월에 '맘 나누기 사랑 나누기 운동'을 통해 탈지분유(삼양사) 26톤(약 1억 5천만 원 상당)을, 2001년 12월 29일에는 '북한 일산모와 어린이들이 쉼과 인'을 전개하여 산모, 아동을 내북 1만 2천벌을 북한 <민주여성동맹>과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실행위원회>에 전달하였다. <YWCA>도 1989년 이래 6회에 걸쳐 총액으로는 3억원 이상을 기탁하여 여성의 돈으로 모은 성금으로는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다. 2001년에는 <한국여성지도자연합>의 김윤덕총재가 북을 방문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YWCA』, 2002, 19쪽;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 자료집』, 1998, 87쪽;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 자료집』, 2002, 101-2쪽
- 4) 앞의 토론회가 교류가 원활치 않던 시기에 민간으로는 처음으로 관공점을 거쳐 평양을 방문한 남북 여성의 만남이었던 만큼, 언론은 이 행사를 대서특필하였다. 이를 위해 한병숙, 위의 글, 218-20쪽 참조

이 계속되었을 뿐이다.<sup>51</sup>

그러나 본격적인 남북여성간의 만남은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이하 민족화합이라 칭함)·중단·통일연대에 의해 2001년부터 시작된 6·15 남북공동행사(금강산)와 평양·서울에서 개최된 8·15 남북공동행사를 통해서였다. 여기에서 타 부문과 마찬가지로 여성은 별도의 상봉모임을 가질 수 있었고, 상호간에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늘 그렇듯이 이런 모임에서 어떤 알맹이 있는 대화가 진척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자주 만나야겠다는 확신을 주었고, 남북 여성간에 뜨거운 자매애를 느끼도록 해주었다.

김대중 정부 집권기간 동안 남북여성교류의 가장 큰 성과는 2002년 10월 16-17일 사이에 개최된 남북여성통일대회이다. 분단이후 최초로 열린 남북여성대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높이 평가될 만하다. 1999-3년 사이에 개최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도 큰 의미를 지닌 것이지만, 이는 일본을 포함한 3차 회합이었고, 토론회 자체도 일본여성들의 중재가 없었다면,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에 비해 2002년의 남북여성통일대회는 남북이 자주적으로 여성대회를 준비하였다는 사실과 남한의 경우 모든 보수에서 진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성단체를 망라하였고,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대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여 남북화해와 평화공존의 기본정신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될 만하다. 또한 이 대회에서 남북 여성들이 어떻게 각자 6·15공동선언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점에서 의미 깊은 대회였다.<sup>52</sup> 주로 만남과 친교에 역점을 둔 이 행사에서는 남북 여성간에 자매애를 확인할 수

51 그 외에도 2000년 10월에는 북한노동당창선 55주년 기념행사에 남한의 시민사회운동 인사 40여 명을 초대하는 데에 여인 대표로 지은희, 이경숙, 정원택 3인이 참가한 바 있었다. 여기에서 여성은 별도의 부문 모임을 갖고, 북측 대표로 참여한 홍선옥씨와 2001년 3.8대회를 남북여성 이 함께 치르자는 의견에 합의하였고, 이때이래 교류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52 이 행사는 토론회보다는 문화행사와 친교에 역점을 두고 치러졌다. 10월 16일 개막식에 이어, 6·15 공동선언 실천과 여성의 역할 및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두 주제로 남·북 해외여성의 간단한 발표로 이루어진 토론회가 열렸다. 이어서 '남북 여성통일대회 기념 수예 및 미술전시회'가 있었고, 이는 유희·오락경기, 공동연회, 부문별 상봉모임(여성단체·통일단체·경제·노동·농민 여성정책 등), 합동예술공연, 폐막식, 공동산행, 친송행사로 이어졌다. 특히 유희·오락경기에서는 문화행사에 대한 북의 정성스러우면서도 치밀한 준비가 돋보였다.

있는 의미 깊은 자리였지만, 서로간의 이질성을 확인하는 뼈아픈 자리이기도 하였다.

## 통일교육

6·15공동선언 이후 여성통일운동에서도 가장 중요시 간주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로 통일교육문제가 대두되었다. 새로이 대두된 남북 간의 화해 및 공존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반공주의 정책 아래 살아온 여성들은 이 급박한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고, 공교육에서도 통일교육의 새로운 내용을 채우는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많은 여성운동단체에서도 정치나 통일문제 등의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들을 위해 통일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였고, 여성통일교육의 새로운 방법론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2000년 11월 7일에 '21세기 한반도 평화·통일교육 방법론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외국의 평화교육방법론을 배우고자 하였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이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YWCA>도 회원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여성, 2002, 11: 36; 여성, 2003, 12호: 18)

2000년에 들어와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돋보이는 점은 기존의 지식 전달위주의 방법을 탈피하고, 좀 더 쉽게 교육대상자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와 문화예술단 <타라>에서 공동 기획한 통일인형극 상연이었다. 어린이 통일 인형극 '땅땅이와 슴슴이'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2500명을 대상으로 상연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통일교육의 또 다른 색다른 방법으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사이버 평화축제-공모전을 꼽을 수 있다. 띠니, 캐릭터, 삼행시,

2) 여기에는 이장원, 김정수 등의 한국 측 참여자 외에도,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ly Service Committee, AFSC)에서 Karen Lee가, International Alert에서 Ancil Adrian Paul이 참여하여, '평화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과 AFSC의 '평화교육'과 '여성과 평화교육'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해주었다.

3) 소재나 줄거리 자체가 단순하고, 배경분위기가 너무 우울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으나, 통일교육을 대중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획이었다. 단지 아쉬운 것은 본래는 어린이가 인형극을 보는 동안,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행동실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당선되는 사람에게 시상을 하였고, 사이버 퍼즐도 시도하였다. 이런 사이버 공모전은 네티즌들 사이에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식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마찬가지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사이버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하여, 2001년 8.9월 총 10강의 사이버 강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00년 8월 9일 '청소년을 위한 통일한마당: 통일이 노~을~'자를 개최하여, 통일과 청소년 축제를 결합하는 형식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2001: 108-9)

앞에서 언급한 통일교육은 교육의 대중화를 지향하였다기보다는, 주로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에 치우친 한계가 있다. 이는 당장 적은 인원과 격무에 시달리는 민간단체로는 통일교육보다 더 화급히 다루어야 할 이슈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해도 그 내용의 건조함 때문에 참가자를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통일교육원 산하에 비정부기구가 참여하는 <통일교육협의회>가 설립되면서,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다양한 여성단체가 참여하여 함께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조율하고 있지만,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여성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앞으로 여성대중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통일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여성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일상적 이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외 평화운동의 다양한 방법을 보다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차이 좁히기

여성통일운동의 방향모색을 위해 시도된 가장 주목할 만한 한 사업은 여성평화통일포럼의 개최이다. 2000년 5.6월 모든 국민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을 즈음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공동으로 여성평화통일포럼을 창설하여, 각계 여성을 모아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의 기회를 가졌다. 이는 정례화된 여성들간의 토론회모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제1차 포럼에 참여하였던 여성들은 통일정책에서 여성의 참여확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결의하여, 언론기관, 통일부, 청와대 등에 제출하였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기총회 보고서, 2001: 32; 정현백, 2003a: 254-5)

여성평화통일포럼의 목적은 여성평화통일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모임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지닌 여성들이 모여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목적도 지니고 있어서, 이는 여성 사이에서 남남갈등을 풀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화의 장에서 평화통일운동에 있어 여성의 경우 절대적인 정보의 부족을 절감하게 되어, 지금은 우선 대화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간극을 좁히는 과정보다는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1998년에 출범한 민화협이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이 서로의 차이를 내놓고 말하고 좁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 25개 여성단체가 여기에 참여하여 남·남갈등 극복과 남북교류를 위한 공동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민화협은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보수에서 진보까지를 망라하여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남남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초기에는 민화협이 관변단체라는 오해도 받았고, 과거 통일운동을 주도하던 진보그룹이 보수단체와의 합의를 중시한 나머지 활동의 진보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그러나 민화협 활동을 통해서 과거에는 한 자리에 앉기조차 거부하였던 보수와 진보인사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게 됨으로써 남남대화를 활성화하였고 보수적인 단체들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시비를 걸거나 노골적인 반대행동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민화협 여성위원회의 활동이 그리 활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성향의 단체가 서로 만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그간의 남남갈등이 통일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던 데서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들 사이에서도 이런 매우 소중한 것이다.<sup>9)</sup>

확실히 지난 몇 년 사이에 여성통일운동은 그 외연을 확대하여 보다 대중화되었고, 이는 여성들에게 여성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통일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여성이 기존의 진보적 통일운동이 지닌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또 달리는 그간 진행된 여성통일운동의 범주 내에서

9) 민화협이 주관, 통일연대와 함께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를 통해 실시한 여러 차례의 통일대회에 여성들이 부문을 중심으로 참석하여, 북의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진영의 여성이 함께 북의 여성을 만나고, 북에 대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하면서 공동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2002년 10월 16, 17일에 열린 '남북여성통일대회'의 성사란 매개해 준 것도 민화협이었다.

여성이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우선 기존의 통일운동과 연대하면서, 여성은 통일운동이 지닌 강렬한 민족주의적 성향이 성차별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통일운동 내에 존재하는 가부장적 관행이나 권위주의적 혹은 남성중심주의적 운동문화에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그간 우리의 진보적 통일운동은 군부독재의 혹독한 탄압 아래에서 용기 있게 싸워온 것은 널리 칭송할 일이지만, 이 운동은 통일방안 중심의 통일논의나 남북 정치권력의 형식적 결합을 중심으로 한 통일담론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정현백, 2003: 253, 262) 또 다른 한 권으로 여성통일운동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내용이나 접근방식으로는 민족공조나 민족적 동질성에 도대를 둔 통일국가 이상을 넘어서는 어떤 전망을 갖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남북 여성간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되는 서로간의 차이와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편적 가치와 지향성이 필요함을 일깨워주었고, 달리는 강대국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급변하는 동북아의 현실에 견주어볼 때, 통일국가의 실현이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운동의 우회로를 발굴해내면서, 동시에 평화실현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더불어 여성평화운동이 서서히 활성화되었다.

### 3) 해외평화운동의 영향

한국에서 여성이 선구적으로 먼저 평화운동을 시작하게 된 때에는 1980년 대 이래 해외에서 진행되었던 평화운동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다. 한명숙은 그의 글에서 “여인의 평화운동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의 평화운동으로부터 평화의 개념과 운동의 과정을 배우면서 운동을 시작한 것이 사실”임을 술회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사실상 평화운동을 가장 앞서 시작하였던 대표적인 단체가 여인이었고 보면, 한국의 평화운동에서 외국의 영향은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1997: 209)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미 70년대에 시작한 왼쪽 피해자지원 운동은 평화운동의 관점보다는 사심은 인권·복지 차원의 운동이었고, 본격적으로 진행된 평화의 날 행사나 국방비 삭감운동 등은 주로 독일 평화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1989년 2월 여성평화연구원을 설립하였던 김윤옥은 이런 해외 평화운동의 영향과 지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증언해주었다. 그에 따르면 1988년 방한하였던 독일 “세계인을 위한 양식(Brot für die Welt)”의 실무자인 몰(Hannelore Moll)여사가



분단 한국에서 평화운동이 성장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의 도움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여성평화연구원이 설립되었다.<sup>10)</sup> 오랜 독일 체류를 통한 김윤옥의 풍부한 평화운동의 경험과 『여성·평화』의 발간을 통한 해외 평화운동에 대한 정보전달이 한국에서 여성이 평화운동에 앞장 설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였던 것 같다. 당시 전성기를 이루었던 독일의 신사회운동, 그 안에서의 반전·반핵운동의 동력은 민족문제의 해결에 집중하였던 기왕의 통일운동을 넘어서서 여성운동이 새로운 관점을 지닐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셈이다.

### III. 여성평화운동의 발전과 다양화과정

이미 1970년대부터 빠르게 시작하여 1990년 후반기에 본격적인 발전단계에 진입하는 여성평화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조직적 발전을 거론해야 할 것 같다. 여성평화운동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1997년 3월 28일 각계 여성 300여 명이 모여 한국 최초의 평화운동단체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를 창립한 것이다. 창립의 계기는 여성계 인사들 사이에서, 평화통일운동의 중요성이 높아지는데 비해, 이를 전담할 전문단체가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sup>11)</sup> 이들은 그 창립의 역사적 의미를 첫째로 한국여성들의 통일 의지를 묶어내면서 동시에 이를 여성의 관점, 평화의 관점에서 발전시킬 사회행동의 장을 펼쳤다는 점, 둘째로 1991-3년에 일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토론회'를 계승하면서, 남북여성교류를 진척시킬 상시적인 틀을 만들었다는 점, 셋째로 여성의 평등한 참여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성의 소외가 가장 심했던 통일·안보·국방 분야에서, 처음으로 전문적인 여성단체가 출범하면서 여성들이 토론하고 평화통일의 비전을 제시

10) 김윤옥과의 인터뷰: 2003년 9월 14일 1에서 이련 프로젝트가 사선은 독일의 개발원조기구의 한국담당자모임에서 논의되면서, 한국의 평화운동에 대한 지원이 공동의 합의 속에 진정되었다고 전해 주었다.

11) 이 논의에는 1990년 이래 남북여성통일운동을 주도하였던 이우경을 필두로 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소속된 다양한 여성지도자 지은희, 신혜수, 정강자 등이 동참하였다. 평화통일의 의지를 대변할 이 최초의 여성평화운동조직의 초기 임원진은 이우경·김윤옥·이김현숙·정현백으로 구성되었다.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을 열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998: 45)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속한 단체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통일·평화운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대중적인 운동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자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여성평화운동과 관련하여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단체는 YWCA이다. 이미 1986년부터 평화통일 위한 정오기도운동, 걸프사태에 직면한 평화를 위한 공동기도문 제작, 어린이 평화교육 교재 발간 등의 활동을 조율한 평화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처럼 진보적인 요구를 제기한 것은 아니고 또한 평화운동만을 전담하는 조직은 아니지만, 350만 명의 회원을 가진 YWCA가 지닌 대중적 기반을 고려할 때 여성평화운동에서 이 단체의 역할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 단체가 해온 활동의 상당부분은 '평화통일운동'이라는 명칭 아래 주로 통일운동에 집중하였다. 그렇다면 어느 단체보다도 일찍이 평화운동을 시도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 외에도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간 여성운동 내에서 적당체로서의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였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산하 한국통일여성협의회가 1998년 'IMF시대와 여성 그리고 방위비'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주한 미군의 방위비분담의 부당성을 토론했다는 다당을 마련한 점이다. 그러나 이 한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은 주로 통일운동에 집중되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 1998: 10: 46)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평화 뿐 아니라 통일운동까지도 포괄하였던 데 비해, 순전히 평화주의자운동으로 출발한 조직들도 김대중 정부시기에 탄생하였다. 1997년 5월에 오키나와, 1998년 워싱턴, 1999년 헤이그, 2000년 오키나와에서 '군대, 여성,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하면서, <두려움>, <평화인권연대>, <주한미군 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군사주의와 대머춘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 연대> 등이 중심이 되어 2000년 7월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 미군기지촌에서 미군범죄와 관련한 활동을 하던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형성된 이 네트워크는 주로 군사주의 문제를 여성과 관련하여 제기하

12) ywca는 1986년 이후 평화통일과 관련하여 기도운동 6회, 캠페인 및 교재발간 6회, 심포지움 워크숍 8회, 북한이래모임 및 교육을 5회, 모금운동 6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중에서 이 논문이 상거하는 의미의 평화운동에 해당하는 경우는 8회 정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ywca 전국대회를 위한 운동총집행 보령자료집」, 2003. 4. 22, 84-5면을 참조.

면서, 우리 사회 내에서 군사주의에 의해 고통받는 여성인권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국제연대사업으로 일환으로 2001년, 2002년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국내 활동으로는 군사주의와 여성을 주제로 워크숍 개최를 들 수 있다.

9·11일 테러이후 설립된 또 하나의 여성평화운동단체로는 <전쟁에 반대하는 여성연대(Women Against War, WAW)>를 들 수 있다. 2001년 9월 20일 발족한 WAW는 "전쟁의 피해자로 오랫동안 잊혀져 온 모든 여성과 장애인, 소수 인종, 성적 소수자, 어린이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모든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 및 단체들의 모임"임을 표방하였다. 주로 이 연대기구에는 부산대 여성주의 쉼터 '쉴방', 여성신문, 여성주의 사이트 '언니넷', 연세대 총여학생회, 이화여대 대학원 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한국어성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모임 '꺼리꺼리'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구성성분에서 드러나듯이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영 페미니스트'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간 아카데미즘에 머물렀던 여성주의자들이 전쟁의 위협이라는 절대미들의 현실에 즈음하여 실천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2001: 38) 특히 WAW운동은 이것이 온 라인을 통해 사 이버 세대에게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운동의 새로운 장으로써 기대해볼 만 하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 여성통일운동에 박차가 가해지는 것과 병행하여, 그 운동 내에서 평화주의적이면서 동시에 성평등적인 관점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초기에 통일운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평화운동의 비중이 더 증대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여성평화네트워킹>나 WAW는 초기부터 활동의 중점이 여성평화운동에 놓이면서, 전쟁 반대나 미군범죄 문제, 여성과 소수자인권 등의 관심을 여론 속에서 환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런 여성의 평화실현을 위한 활동을 편의상 네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한다.

## 1) 정치적 실천행동

여성평화운동에서 <여성단체연합>이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정치적 실천을 중요하게 간주해왔다. 그 일환으로 평화군속전군가

워크숍, 평화군축을 위한 새제여성의 날 선언 및 거리행동, 기자회견, 추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축소추구운동, 일미 신가이드라인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반대를 위한 행동, 국감시연연대 국방위원회 모니터활동, 전투기 F15K 내정 철회 및 FX사업에 반대하는 시민행동, 미군장갑차여중생암사건에 대한 항의집회 등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교회여성연합회>는 공동으로 '소파개정 시 여성인권보호조항 신설을 위한 국회결의 촉구 청원안'을 제출한 것은 주목할만 하다.(한국여성단체연합, 2001: 110) 이런 정치행동은 대체로 다른 시민,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여성들만의 연대로 꾸려지는 운동도 적지 않았는데, 소파에 여성인권보호조항을 삽입하기 위한 캠페인,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여성만의 평화시위, 전쟁 전후에 미대사관 앞에서 1달간 계속된 1인 시위를 주도하였다. 여성들은 22개 단체가 참여하는 '전쟁반대 여성평화행동'을 결성하고, '전쟁중지와 평화해결을 촉구하는 여성평화참목시위'를 포함한 다양한 반전행사를 개최하였다. 특히 여성들의 반전시위나 캠페인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평화적인 집회를 시도하면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세인의 주목을 끈 것이다. 참여자 수는 대체로 100명을 넘지 못하였지만, 여성의 반전행사가 언론에 자주 보도된 것은 이 행사에서 나타난 문화적 창의성 때문이었다.(한국여성단체연합, 2002: 109-10)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기총회자료집, 2002: 16-22) 또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오마이뉴스>와 함께 시도한 '평화쪽지 날리기 운동'은 평화운동과 사이버 대중운동을 결합한 모범적인 사례였다.

그 외에도 WAW도 2001년 10월에 신촌과 평화문, 부산에서 건널목시위를 시도하였다. 또한 이들은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의 중지를 요구하면서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해 '함께 쓰는 성명서 433천여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이라 명명한 운동을 전개하면서, '군사력은 곧 안보를 보장한다'는 기존의 통념을 넘어 서서, 새로운 안보와 평화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조이여울, 2002: 61-2) 그 외에도 이 단체는 새로운 운동방식을 표방하고 있는 점이 특이한데, 구체적으로 "여성단체와 여성주의 인터넷 사이트, 여성연론,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새로운 여성연대체'의 가능성을 실험"하겠다는 것이다.<sup>3)</sup> 이러한 자발성에 기초한 열린 조직들은 이미 70년 대 이후의 구미의 여

성운동에서 시도한 방식들에 새로이 사이버공간을 동원한 조직형태가 결합한 것인데, 주로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선명한 이 조직과 활동방식은 앞으로 한편으로는 확립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급속하게 개인주의화되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운동방식으로서 그 한계와 가능성을 실험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 2) 평화를 위한 문화적 실천

평화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방식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도 전개되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내일을 여는 청소년 문화제' 여덟살 놀자 평화의 물결을 타고(1998)를 4회에 걸쳐서 개최하였다. 문화적 시설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노원구와 청소년이 집결하는 대학로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비폭력평화공존의식 확산을 위한 평화문화 캠페인(1999)을 전개하였고,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페스티벌도 펼쳤다. 또한 평화영상팀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유익이는 학교'를 통해 평화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YWCA도 폭력추방 평화캠페인(1989), 전쟁놀이 장난감 추방운동(1992)을 전개하였다. (ywca, 2003: 84) WAW에서는 아프간 영화제를 개최하여 많은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면서, 반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WAW는 아프간 전쟁 1주년 행사에서도 다양한 상징과 문화 퍼포먼스를 통해 '전쟁과 여성'이 지나는 함의를 문화적으로 말리고자 노력하였다.

평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행사는 평화기행이다. 1998년 이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나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시도한 '분단현장 체험을 위한 평화기행'은 가족 단위의 행사여서 대안적인 여가문화로 기능할 뿐 아니라, 평화의식을 대중화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었다. 이 사업은 지속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데, 이는 여성운동단체들이 삼각한 실무부담으로 인해 이를 추진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13) 현재 이 연대기구 안에서는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http://www.freechal.com/kwaw/>)를 통해 개별 회원이 언론, 번역, 대학, 사이트, 학술, 홍보 등에 자원하여 요구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개별회원이나 연대 단체들이 함께 집회, 서명운동, 학술 토론회 및 사이트 운영을 통해 전쟁에 반대하는 행동을 실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 3) 평화교육

YWCA가 세계평화와 여성연대를 위한 뉴욕회의(1996)를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와 함께 개최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미국친우봉사회(友朋會)의 후원으로 국제여성평화심포지움 '21세기 평화와 여성운동·여성·평화·화해(1997. 6. 17-20)'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는 분쟁 중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표나 독일, 동티모르, 남아연방 그리고 WILPF의 대표가 함께 참석하여 의미 있는 국제행사였다.<sup>14)</sup> 그러나 보다 집중적이면서 지속적인 연구활동으로는 평화군축이 1998년의 중점사업이었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주도한 군축의감각시행활동을 위한 워싱턴, 국방비예산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평화군축전문가 워싱턴,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싱턴, 여성평화운동 징집을 위한 워싱턴 등을 들 수 있고, 이는 평화운동의 관점과 쟁점을 정리해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어느 시민·사회단체보다도 적극적으로 군축과 평화 실현에 참여하였지만, 여성단체들이 지니는 한계는 실제로 여성 중에서 군축, 군사문제 전문가가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군비와 관련된 토론이나 운동에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정확하고도 세분화된 정보가 필요한데, 여성단체들은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해서 평화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였면서도 사회 내에서의 전반적인 논의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한계가 여성이 평화교육 분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여 그간 축적해온 성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 우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평화교육 방법론 개발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가 그 실무자를 선출하여,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ly Service Committee)의 후원으로 '갈등해소와 관용교육'을 2년여에 걸쳐 실시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특히 국내에 갈등해소와 관용교육을 담당할 전문가가 없는 관계로, 해외에서 강사를 초빙하고 교육생에게 미국 현장방문교육을 실시한 것은 국내 평화교육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한

14) 한국여성단체연합, 1998년 제12차 정기총회 보고서, 1998.1. 22, 85면 참조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여중생과 교사집단, 운동단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김동해소와 관용교육'이 공교육 기관인 서울시교원연수원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에 앞의 교육과정을 거친 실무자를 포함한 것은 여성평화운동의 큰 성과라고 생각된다. 그 외에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계속 실시하고 있는 '평화아카데미도 평화교육의 중요한 심천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15)

마지막으로 '평화와 공존'의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할 것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하였던 '무궁화와 진달래모임'이다. 이 모임은 98년 북한이탈여성주민과의 최초의 대화모임으로 출발하여, 1999년 2월 24일에 '무궁화와 진달래모임'으로 발전하였다. 북한이탈여성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된 이 모임은 우리와는 다른 과거와 경험세계를 지닌 여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서로 학습해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나,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제기되면서, 이들은 온전한 북한이탈여성민의 모임으로 분리해나갔다. 오히려 이런 만남의 장을 2001년이래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곳은 YWCA이다. 그 외에도 이 단체는 북한이탈주민 상담원 교육 및 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그리고 중국북경연길 북한이탈어린이 및 여성을 위한 쉼터 개소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YWCA, 2002, 11: 19)

#### 4) 국제연대

세계화(globalization)의 시대에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까이는 한반도의 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연대일 것이다. 특히 강대

15) 평화와 관련된 연구활동으로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발간한 <여성과 평화>를 들 수 있다. 이미 2호가 발간된 이 책은 여성평화운동의 이론을 집결하고, 이를 어떻게 대중화할 것인가를 고민한 노력의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 의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로 <봉암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이 2002년 11월 통일교육원 총서로 출간되었는데, 이는 우리 통일교육을 평화교육의 관점과 실행방안으로 견인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그 외에도 운동단체에 의해 수행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여성개발위에서도 '한국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의식과 발전방향'이 2000년에 발간하였다. 한국여성평화연구소, 2000과 한국여성평화연구소원, 2001을 참조.

국 정치에 좌우되는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운동 차원에서 미국이나 일본 평화운동의 지원을 받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반일감정이나 반미감정 때문에, 혹은 언어 소통능력의 부족과 한국이 지닌 독특한 문화적 고립성, 그리고 예산문제 때문에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은 국제 연대에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국제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성평화네트워크는 2001년 과 2002년에 걸쳐 '군사주의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국제인권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나 <한국여성단체연합>도 국제연대에 상당한 정도로 무게를 두고 있어서, 유엔여성지위위원회, 국제여성평화연맹(WILPF), International Alert, 평화연대(Peace Alliance) 등과 상시적인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고, UNESCO나 아셈 민간포럼과도 공동으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프간이나 이라크전쟁을 전후하여 진행된 국제연대활동, 특히 사이버 시위와 사이버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민·사회운동의 국제연대에서 남성활동가들이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여성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평화운동의 분야에서도 이는 예외적이지 않다. 이런 기반을 토대로 국제연대를 위한 여성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sup>16)</sup>

지금까지 여성이 해온 평화운동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여성동일운동이 높은 비중을 지녔지만, 그 무게중심이 서서히 '통일'에서 '평화'로 이동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앞에서 밝힌 대로 이 과정에서 국제 평화운동과 국제세미나리즘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동시에 운동방식의 측면에서도 기존의 운동문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문화행사나 평화적 시위, 명상 등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경우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발전된 여성평화운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쟁점이 되는 문제를 검

16) 국제연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1) 미국, 일본, 유럽의 평화운동에서 적극적인 여성단체와 활동가를 파악하여 이를 네트워크로 묶어야 하고, 2) 평화운동의 효율화를 위해 핵심적인 조직가(coordinator)와 핵심그룹(core group)을 형성해야 하고, 3) 연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세네카나 뉴욕과 같은 국제도시에 연락사무소와 실무자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철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시민단체 국제연대 형성에 대하여, 평화포럼 「남북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워크숍」, 2001. 11. 15 참조.



로하면서, 한국여성평화운동의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 V. 여성평화운동의 쟁점과 과제

### 1) 평화를 통한 통일로

지난 30년 간의 군부독재체제 하에서 우리 통일운동은 정치 지향적이면서, 통일방안 중심의 통일논의나 남북 정치권력의 형식적·기계적 결합이 통일담론의 중핵을 이루었다. 또한 통일운동 내의 문화도 남성적·가부장적이었다. 그러나 남북공동선언과 함께 이제 평화공존체제의 모색이 우리의 일차적인 과제가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적대적 군사대결 구조를 완화하는 작업이 시급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은 선도적으로 통일운동을 포괄하는 좀더 확장된 범주로서 평화운동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제 여성평화운동은 '통일을 통한 평화로'가 아니라 '평화를 통한 통일로'를 기치로 내세우고자 한다.<sup>17)</sup> 이는 90년대 초, "통일이야말로 한국의 평화운동에 최우선평화체라고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여성운동이 한 단계 진전하였음을 의미한다. (한명숙, 1997: 209)

그러나 지금의 통일운동이 화해·협력체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평화운동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서 평화운동이 되기는 힘들다. 우리 통일운동은 민족주의 담론이 여전히 중요한 동력이며, 국제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운동의 새로운 문제의식과 공유하는 바가 적었다. 그러나 한 사회의 평화는 이제 국제적 연대나 제휴 없이는 지켜지기 어렵기에, 평화운동은 평화실현을 '국제적 시민공동체'의 건설과 연관이야 사료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최근의 한반도 핵 위기는 그 자체가 국제 사회의 지원과 협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난 몇 년 사이에 침체화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북한문제를 둘러싼 남한 사회내의 갈등은 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이런 현실을 직면하면서 여성활동가들은 남한 사회의 일상생활 속에 평화가 실현되지 않고는 남북 간에 평화공존체제를 실현하는 것이

17) 전체 여성운동 내에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여성단체연합> 통일평화위원회는 이미 2002년부터 통일평화운동의 슬로건으로 '평화를 통해 통일로'를 합의하고, 이를 대외적으로도 표방하고자 하고 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지하고 있고, 이 점이 여성들 사이에서 평화운동이 지나는 현실적 유효성이 강조되는 또 다른 동기이다.

국제사회에서 평화주의 운동이 추구하고 있는 평화운동의 관점을 수용할 경우, 운동에 있어서 기존의 민족통일이 최고의 목표로 간주되고 그를 위해 문화적 민족주의 담론이 우선성을 지니는 관행을 넘어서서, 운동 자체에 보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 인권, 빈곤과 성 및 인종차별 극복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들이 보다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민족담론이 전적으로 부정될 수는 없다. 2002년, 전 국민을 분노와 열기로 몰아 넣었던 촛불시위에서 드러나듯이, 여전히 민족담론은 평화운동을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분단사회가 초래한 갖가지 억압적 현실과 공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호평화공존체제 혹은 나아가서 통일을 실현하려는 노력도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민족담론을 한반도가 처한 현실에서는 안고 갈 수밖에 없지만, 여성평화운동에서는 이를 부차적인 범주로 설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정현백, 2003: 333-7)

## 2) 확장되는 평화 개념

지금의 한국여성평화운동에서 이제 평화개념은 단지 전쟁을 종식시키는 의미의 '소극적 평화'를 의미하지 않고, 우리 사회 곳곳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 때로는 가시적으로 때로는 비가시적이지만 모세혈관처럼 퍼져있는 폭력에 저항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여기에서 폭력이란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구조적 혹은 잠재적 폭력까지를 포함한다.<sup>18)</sup> 이렇게 평화의 개념을 확장하면서, 한국여성에게 떠오르는 중요한 과제는 군사주의의 극복이다. 한국과 같은 분단사회, 군부독재와 반공주의가 강요된 사회에서는 군사주의가 여성도 자신도 모르게 이를 내면화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우리 안의 군사주의'를 포착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졌다. (권인숙, 2003: 133-154)

이렇게 운동 내에 적극적인 평화(positive peace) 개념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 부딪히는 딜레마는 한국의 여성평화운동도 갈등의 규정보로 군사·안보문제

18) '적극적 평화의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제기한 갈등의 저서를 참조할 것. 요한 갈통, 『평화의 수단에 의한 평화』, 감동일 외 옮김, 들녘, 1996, 19-20쪽

외에도 빈곤, 성차별, 생태계문제, 소수자의 인권문제, 핵 위험 등을 함께 포용하고, 운동의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sup>19)</sup> 그러나 현재로는 여성평화운동이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하기에는 그 여력이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기에, 우선은 한반도 핵문제나 군사주의·국방문제·평화교육 등에 전념하되, 나머지 문제를 전담하는 NGO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적 사고와 전망을 가지는 것이 현명할 듯하고, 현재 여성평화운동도 이 범주로 한정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 3) 여성주의와 평화주의 관점의 결합

여성이 하는 평화운동은 기왕의 평화운동과 어떻게 다르며, 달라야 하는가? 흔히 “여성은 생활환경이 타인을 배려하는 여건에 있으므로, 여성은 평화에 대한 감수성이 더 강하고.” 등등의 자기규정과 함께 그래서 여성이 평화운동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이 과정에서 모성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여성주의자도 있다. 그러나 여성이 지니는 상대적으로 강한 평화 감수성을 본성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여성의 노동환경이나 생활환경이 ‘돌봄’에 익숙한데서 기인한다고 파악하고, 이를 여성평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유리한 출발점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Ruddick, 1999, 112-3)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여성을 항상 전쟁과 폭력의 희생자로 간주하는 양분법에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미 나치의 대학살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거역이 조력자로 참여하였음이 밝혀지고 있고, 일본군 성 노예와 관련하여서도 일본 여권론자 역시도 제국주의 체제와 편안한 공존을 하였던 점이 비판되고 있어서, 여성을 단지 피해자라만 설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진행되고 있다.(치즈코, 1999: 56-8; Turpin, 1999: 805; Yuval-Davis, 2001: 308) 이는 여성이 스스로 안에 내재하는 군사주의를 읽는 자기 성찰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성찰과정은 우리 여성평화운동 내에서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소수의 견해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더라도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은 남성보다 앞서서 평화관점을 발전시키면서 평화를 통일

19) 이런 맥락에서 여성평화운동에 청년대대개혁여회의 활동을 포함하는 시도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다당하지만, 안보와 군사문제,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여성평화운동을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이 글에서는 이를 생략하였다. 김양희·양애경·정숙경, 한국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의의와 발전 방향, 『한국여성개발원』, 2000, 45-46면 참조.

보다 상위의, 보다 포괄적인 관점으로 서서히 승화시켜 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를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평화를 통한 통일'의 슬로건이다.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인 운동문화에 대한 성찰적 비판도 이런 시도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여성주의와 결합한 평화운동은 평화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견지되어온 '정의로운 전쟁이론(just war theory)'은 '때로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이라크전쟁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서 악용되고 있다. (Peach, 1994, 152) 이 이론 자체가 전형적인 남성적 사고의 추상성 내에서는 사람이거나 배려, 관계성보다는 민족독립이나 자치 등의 관점이 우선적으로 존중되고, 여성보다는 남성, 개인보다는 국가를 우월한 것으로 간주하고 개인은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 희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들은 선과 악, 전쟁과 평화의 이분법과 그 추상성에 집착한다. 그러나 여성평화운동에서는 평화에 대한 철학도 분명히 달라야 하고, 현실에 대한 보다 맥락적이고 개별화된 접근을 시도하고, 삶의 질과 관계성을 고려하면서, 여성이 파라는 대안사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현재 평화운동 내에서 이런 고려와 방향 모색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대안사회를 구체화하는 논의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4) 국가주의와 자본주의를 넘어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면서, 상호 공존을 위한 의식과 태도를 배양하는 실천 활동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갈등해소와 관용교육'이 이루어졌고, 이는 상당한 호평을 받은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분단으로 인해 교육, 이념 등 많은 분야에서 조야한 양분법이 통용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갈등해소와 관용교육은 현실적으로 평화운동이 실현해야할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갈등해소와 관용은 평화운동이 지향하는 장기적인 과정에서 필요한 휴전상태를 조성하지는 못한다. 여기에서 나아가 평화운동은 전쟁 뿐 아니라, 빈곤·성차별·인종차별·폭력·환경과괴가 사라진 대안사회, 즉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방지 못지 않게 자원의 공정한 배분이 이

부어지고, 이를 통해 빈곤이 해소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반세계화운동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안적인 세계체제가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sup>20)</sup> 그러나 세계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논하는 것에 못지 않게 한국사회 내에서 어떻게 보수세력의 호전적인 예국주의나 부국강병적 국가주의를 극복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권혁범, 2000: 서문; 권혁범, 2002: 3; 임지현, 2002: 189) 또한 근대국가가 국민 전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전쟁 주체로 만드는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Hall, 2001: 873) 민족주의 담론이 집단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끊임없이 강요하는 것 외에도, 강력한 국가 혹은 보다 잘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수자나 타국의 국민과 그들의 평화가 희생되는 것에 대해서 여성평화운동은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아직 우리의 여성평화운동에서 이런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와 국가를 넘어서서 남과 북, 나아가서는 지구인의 공존을 모색하려는 이런 목소리들이 힘을 얻어가야 할 것이다.

#### 5) 대안적인 운동문화

70년대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 운동문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으나, 이가 공공 담론의 영역에서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에 의해 이런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이런 비판이 민족주의 담론과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면서, 적지 않은 주목을 받고 있다.<sup>21)</sup> 또한 2003년에는 촛불시위 범대회위원회(이하 범대위)와 청담)를 향한 젊은 페미니스트의 비판을 통해 여성주의자의 문제의식이 뚜렷이 제기되었다. 즉 여성들은 성조기 훼손과 'fucking USA'를 통해 부시 행정부와 미국인을 동일시하면서 개인을 국가로 환원해버렸고, 홈페이지에 고 윤금이의 참혹한 주검 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통해 여성의 신체를 때려하지 않고, 민족주의 담론의 필요를 위해 작위적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즉 이는 "여성의

20) 지금까지 반세계화운동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에 관한 이론서들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이론적 제안을, 예를 들면 마리아 미스의 「하부에서부터의 세계화, 나 조지 소로스의 "열린 사회"가 논리성과 타당성을 견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 세계화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대안전략이 시급히 필요하다. 한지혜, 2003년 5월 8일자 참조.

21) 이런 문제제기는 연인숙의 박사는문에서 시작되었고, 최근 권혁범의 비판이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의 권혁범 논문 참조.

신체가 참혹하게 피해를 당한 장면이 (남성)민족의 치욕으로 치환되어 (남성)국가적 분노를 자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것'일 뿐이라는 문제제기였다.<sup>22)</sup>

이런 비판들은 여성이나 소수자를 배려하는 운동문화의 실현을 위한 좋은 근거가 될 것이기에 여성평화운동은 이런 문제제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도 자신 안에 왜곡된 운동문화를 내면화한 것이나 아닌지를 성찰하는 자기점검이 필요하다. 세대간의 대화와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압축적 고도성장'의 멘탈리타를 지닌 것이나 아닌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평화는 목표지점에 달성되는 것이보다는 평화는 '과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제 여성은 평화주의의 관점과 함께 패거리의식, 왜제모니 장악 욕구, 절차의 비민주성 그리고 가부장적 운동문화를 지양하는 과정을 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평화운동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성 평화운동의 관점이 지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성 사이에서 운동의 대중화는 요원하다. 어떻게 새로운 전략과 방법론을 통해 대중화를 시도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 VI. 끝맺는 말

이 글은 780년대에 활발하였던 여성통일운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여성평화운동이 새로이 등장하여, 1997년 이후로는 통일운동을 포괄하면서 보다 확장된 문제의식과 더불어 성장해 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그간의 통일운동이 시민성을 획득하기 위해 변신을 시도하거나, 국제 평화운동이나 페미니즘의 영향 그리고 그간의 여성통일운동이 지닌 한계 때문에 여성은 평화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불어서 여성은 평화운동단체의 때 이른 결성과 함께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평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

22) 고려대 법대 여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연세대 총여학생회, 관여여성모임연대, 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인권 없는 반여성적 판진운동 반대한다」, 2003년 4월 7일 참조. 그 외에도 한국성북학성당소도 유사한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평화네트워크>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보다 여성은 몇 년 앞선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sup>25)</sup>

몇몇 여성평화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반전 및 군축운동, 평화문화 확산운동, 평화교육, 국제연대가 시도되었고, 이는 여성평화운동의 짧은 역사를 고려하면 경이로운 발전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전체 여성운동 내에서 여성평화운동은 여전히 선도적인 집단의 전유물이고, 여전히 대다수의 여성단체는 여성통일운동에 대담려 있다. 그렇더라도 이는 대다수의 보수적인 여성단체들이 통일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를 기피한 과거를 반추하자면, 이 자체만으로도 여성의식의 큰 발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러한 여성통일운동이 평화운동적인 관점과 실천운동을 함께 포용하도록 건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주의와 평화운동을 결합하는 여성평화운동은 많은 해결해야 할 쟁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 여성이 광범한 평화개념을 수용하더라도, 평화운동의 범주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 평화운동과 여성주의가 결합할 경우 평화운동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지, 평화운동의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대안체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그를 위해 어떤 전략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여성이 참여하는 평화운동은 기존 통일운동 문화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큰 질문은 당장 해답이 주어지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이지만, 평화교육·평화문화 실천·반전운동·국제연대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과정에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접근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볼 때 여성평화운동은 아직 출발단계에 불과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실천들은 대안사회를 모색하는 보다 총체적인 고민과 현실 속의 구체적인 개혁을 결합하려는 시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25) 평화네트워크는 2000년에, 평화군축센터는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여성운동에 비해서는 평화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다.

## 참고문헌

- 고려대 법대 여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연세대 총여학생회, 관악여성모임연대,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2003), 「인권 없는 반여성적 반전운동 반대한다」, 4월 7일
- 권익순, 「우리 삶 속의 군사주의」, 『여성과 평화』, 당대비평, 2000, 133-154쪽
- 권혁범(2000),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숲
- 권혁범(2002), 「근대성과 민족주의담원 혹은 열린 민족주의를 넘어서」, 『동국대 대학원 신문』, 12월호
- 김민환(2003), 「누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김진균 편저, 『저항과 연대, 기억의 정치 2』, 문화과학사, 399-416쪽
- 김양희·양예경·정숙경(2000), 한국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의식과 발전방향, 한국여성개발원
- 김창수(2001), 남북화해협약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한국노총, 통일사업 실무책임자 교육 발전 워크샵 자료집
- 서동만,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대응, 참여사회연구소·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 심포지엄, 『2001년 통일정책과 시민사회의 대응 자료집』, 2001. 4. 14
- 우예노 치즈코, 『내셔널리즘과 젠더』, 이선이 옮김, 박종철 출판사, 1999
- 이성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시민단체 국제연대 형성에 관하여, 평화포럼 『남북 평화를 향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자료집』, 2001. 11. 15 참조
- 임지현(2002), 「다시,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항쟁과 비평』, 가을호.
-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이프간 여성영상제 '전쟁, 폭력, 여성' 자료집, 2001. 11. 16-17
- 정현덕(2003)a, 민족과 페미니즘, 당대비평, 2003
- 정현덕(2003)b, 『평화운동과 민족주의』, 한국인권재단, 『제주평화회의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대안담론과 대안정책 자료집』, 321-338쪽
- 정현덕·김정리·김경수(2002),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통일교육원
- 조이어울, 여성과 소수자의 눈으로 본 평화담론, 『여성과 사회』, 14호, 2002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1998), 제2차 정기총회자료집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1999), 제3차 정기총회자료집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2000), 제4차 정기총회자료집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2001), 제5차 정기총회자료집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2002), 제6차 정기총회자료집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2003), 제7차 정기총회자료집
- 한국여성개발원(1994),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과 우리나라의 여성단체활동』, 한학



사

- 한국여성평화연구원(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부설)(1998), *평화를 만드는 여성들*, 통권 6호
- 한국여성단체연합(1998), 제13차 정기총회 보고서
- 한국여성단체연합(2000), 제14차 정기총회 보고서
- 한국여성단체연합(2001), 제15차 정기총회 보고서
- 한국여성단체연합(2002), 제16차 정기총회 보고서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 1998-2003
- 한국여성평화연구원(2000), 『여성과 평화: 1. 당대비평』
- 한국여성평화연구원(2002), 『여성과 평화: 2. 당대비평』
- 한명숙(1997), 『통일·평화운동』, 한국여성단체연합, 『열린 희망: 한국여성단체연합 10년사』, 통덕여대 여성학연구소
- ywca, 전국대회를 위한 운동중점별 포럼자료집, 2003
- 한국YWCA, YWCA, 2002. 11
- Hill, Rodney Bruce (2001), "War and Security", Alexander J. Motyl (ed.), *Encyclopedia of Nationalism*, Vol. 1, London
- Lucinda Peach, "An alternative to pacifism? Feminism and just-war theory", *Hypatia*, Bloomington Spring 1994, Vol. 9, Iss. 2
- Sara Ruddick (1995), "Notes Toward A Feminist Peace Politics," Miriam Cooke & Angela Woollacott eds., *Gendering War Talk*,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Turpin, Jennifer (1999), "Women and War", Lester Kartz (ed.), *Encyclopedia of Violence, Peace and Conflict*, London: Academic Press, pp. 801-11
- Yrval-Davis, Nira (2001), "Gender Relations and The Nation", Alexander J. Motyl, *Encyclopedia of Nationalism*, Vol. 4, London: Academic Press, pp. 297-314





## 함께 불러요...

### <사랑하는 언니에게>

안혜경 작사, 작곡, 노래

어둔길 나 홀로 두려울 때 다가와 길 밝혀준 언니들 있지  
 험한 길 나 홀로 힘겨울 때 다가와  
 손 내밀어 손 잡아준 언니들 있지  
 때론 멀리 있어도 아주 가까이 있는 듯

따뜻한 언니의 정을 느낄 수 있지  
 나 지금 언니를 생각하네  
 벽간 나의 마음 달아 그 이름 불러보네  
 등대 같던 언니  
 호수 같던 언니  
 언덕 같던 언니  
 조랑말 같던 언니  
 (어름 속)등불 같던 언니  
 (신선한)샘물 같던 언니  
 (따뜻한)난로 같던 언니  
 파랗아 같던 언니  
 나 지금 언니를 생각하네  
 벽간 나의 마음 달아 그 이름 불러보네  
 We are the sister good sister  
 We are the sister good sister  
 We are the sister good sister  
 sister good sister



## 회원가입안내

### 평화여성회의 회원이 되시면

- 문화행사, 토론회, 연구활동, 캠페인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회비 납부로 평화여성회 활동을 후원합니다.
- 소식지와 자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행권에 따라 자원활동 및 다양한 회원모임에 참여합니다.
- 평화여성회 웹사이트 <http://www.peacewomen.or.kr>의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회원들끼리 생각과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 ● 회원가입서 ●

기본사항	이름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이동전화
연락처(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처(직장)	주소   직장명   전화번호	우편물받음곳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회비구분	일반회원 월5천원 <input type="checkbox"/> 월1만원 <input type="checkbox"/> 월2만원 <input type="checkbox"/> 월3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학생회원(초중고생) 월3천원 <input type="checkbox"/> 연2만원 <input type="checkbox"/> 연3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회비납부방식	CMS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CMS신청서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가입동기		
관심분야	정세대응 <input type="checkbox"/> 통일과제 <input type="checkbox"/> 국방과제 <input type="checkbox"/> 평화교육문화 <input type="checkbox"/> 갈등해결 <input type="checkbox"/> 평화심성 <input type="checkbox"/> 소식지발행 <input type="checkbox"/> 스튜디오임 <input type="checkbox"/> 평화추진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가입일	200    년    월    일	

